

# 李 vs 安, 최고위원 놓고 기싸움... 당 주도권 다툼 '서막'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

李, 安 추천한 최고위원 거부  
안철수 "화합 차원 정점식 추천"  
이준석 "화합을 뭐 이렇게 하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충돌했다. 안 의원이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이 대표가 재고를 요청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 이를 두고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된 안 의원이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이 대표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표였던 당시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에 최고위원 2명, 당 대변인 1명,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명 등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수용했다. 이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윤전 국민의당 서울시장위원장을 안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안 의원이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합당에 따라 국민의당 출신 인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고위원 몫을 추가로 마련했는데, 안 의원이 목적과 다르게 제시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 인사인 정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해 당 주도권 확보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총회 첫인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에 많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사실상 당내 세력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당내 친윤(親尹석열) 그룹을 겨냥해 비판해왔다. 대표적 인사인 정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불렀던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를 겨냥한 비판이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는 자기 정치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의원이 정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당내 세력화에 나설 것으로 해석되자 이 대표가 재고 요청으로 견제할 게 아니냐

말이 나온다. 차기 당 주도권을 두고 이 대표와 안 의원이 벌써 경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이 같은 해석에 "안 의원과 친윤계는 아무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 의원이 화합 차원에서 정 의원을 추천한 것이라고 하는데) 화합을 뭐 이렇게 하나. 애초 취지대로 안 의원과 고락을 같이했던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

라 어떻게 우리 당 의원을 추천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된) 정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저희는 정 의원보다 국민의당 측 인사가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 인사를 겨냥해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해명도 했다.

이 대표는 김윤전 서울시장위원장이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국민의힘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행동이 있었던 만큼 안 의원 추천은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러면서 "왜 굳이 꼭 이렇게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명단을 주냐.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도 '이거 뭐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합당 이후 최고위원 추가 임명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11명으로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게 논의에 효율성이 있는지 최고위원 간 의견이 같았고, 이 부분은 좀 더 협의 볼 필요가 있다"며 "안 의원이 양보해서 김윤전 위원장만 받으면 (최고위 구성을) 9명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쌀값 폭락에 애타는 농심 "대책 마련을"

지난해 10월말 이후 하락세 지속  
쌀 재고도 쪼체... 수매 대란 우려  
한발 늦은 정부 양곡정책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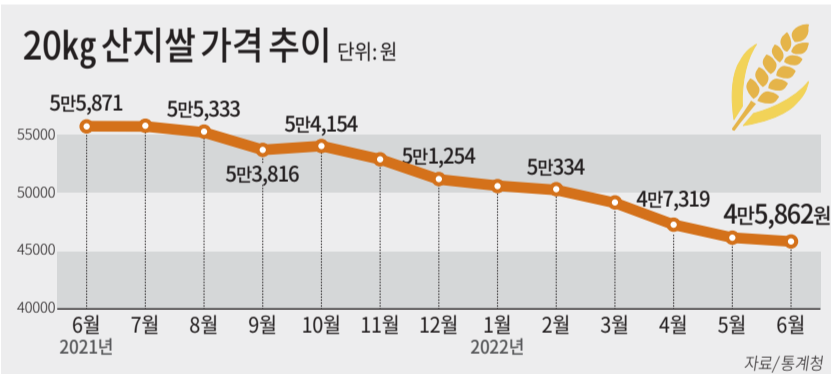
벼는 전국의 논에서 알차게 자라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쌀값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쌀 20kg은 5만4154원을 기록한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초엔 4만5862원으로 지난해 10월 말에 비해 84.6% 수준이다.

고물가 시대에 쌀값이 폭락하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초과 물량에 대한 한발 늦게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 양곡정책도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t)으로 전년의 350만7000톤 대비 10.7% 증가했다. 총 생산량은 정부가 추정했던 2021년산 쌀 수요량 357만~361만톤을 상회하는 수치였다.

쌀 재고도 걱정거리다. 2022년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4000톤으로 지난해 43만톤 대비 77.7% 늘었다. 농민들은 다른 작물을 팔아내야 할 창고에도 쌀을 쟁여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쌀을 보관할 양곡 창고에 전년도 쌀이 대부분 들어차 있어 올해 정부 수매분을 보관할 여력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다. 자칫하다 올해는 '쌀 수매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

결국, 앞서 문재인 정부는 2차례의 시장 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했다.

시장 격리는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이 과잉 생산돼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국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그 외에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국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미국 초과생산량을 이하를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 의에서 초과 생산량 27톤 중에서 20톤을 먼저 시장 격리조치한 후 지난 5월엔 12만6000톤을 추가로 매입했다. 하지만 쌀 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삼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미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 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됐고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을 취했다. 입찰 참가능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며 "농민들은 한해 농사에도 고생한 보람 대신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각 시·도에서 제시하는 가격 중 최저가로 시장 격리된 쌀을 매입하게 하는 것을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으로 부르는데, 입찰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쌀을 넘길 가능성은 높아진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1차 시장 격리 때도) 시장 격리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12월이 돼서 결정했다. 실제 격리는 한 달 후에 시행된다"면서 "최저가 입찰도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늘상 (쌀 값이 썩) 수확기를 넘긴 시점에서 역공매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실은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3차 시장격리 조치로 쌀값 안정화 ▲정부 시장 격리 조치 의무화 ▲쌀 품목 생산비 보장 법제화 ▲농산물 생산감소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피해보상하는 재해대책법 개정을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서 보폭 확장

소극적 모습서 최근 연일 공개 행보  
이달말엔 외교무대 등장 가능성도  
정치권 '제2부속실' 부활 한목소리



'조용한 내조'를 기조로 공식 석상 등장을 자제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일 공개 행보에 나서며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 여사는 각종 논란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비공개 행보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며 행보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첫 출근을 배웅하거나 지난달 14일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아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 시내 백화점과 시장을 찾는 모습 정도만 공개됐다. 한미정상회담만찬장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윤 대통령과 영화를 보는 등 종종 언론 노출되기는 했지만, 조심스럽고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김 여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과 동물권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등 그간 언론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김 여사는 지난 13일 단독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며 행보를 점차 확장하는 모양새다.

김 여사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동행하며 외교무대에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김 여사의 활동 범위가 확장됨에 따

'조용한 내조'를 기조로 공식 석상 등장을 자제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일 공개 행보에 나서며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 여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13일 예방했다. /대통령실

라 김 여사를 전담해 지원할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당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문 표절, 학력·경력 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관리 및 활동 수행, 비서 업무, 대·내외 네트워크 관리, 관저 생활 관리 등을 맡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현재까지도 제2부속실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제2부속실'의 부활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대로, 지금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국민에게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